

202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2차 회의록

1. 일시: 2025. 1. 17.(금) 13:00~17:30

2. 장소: SK미래관 504호

3. 위원

▷ 참석위원: 유용근 기획예산처장(위원장)

박철범 총무처장

변영주 세종기획처장

김현수 의과대학 교무부학장

박종호 대학원행정팀장

김한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장

김진경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장

김용휘 대학원 총학생회장

이선우 의과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오영채 정경대학 학생회장

김혜민 대학원총학생회 정책국장

김우성 삼일회계법인 부대표(외부전문가)

이상 12명

▷ 불참위원: 박현숙 학생처장

이상 1명

▷ 배석자: 박태용 기획예산처 부처장

김효현 학생처 학생지원팀 과장(위원회 간사)

최현석 공과대학 학생회장(위원회 간사)

이상 3명

4. 보고사항

가. 2024학년도 추경예산 및 2025학년도 본예산(안)

- 1) 교비회계 수입의 세부 내역 및 예산(안)
- 2) 교비회계 지출의 세부 내역 및 예산(안)

나. 잉여금 처리 원칙

5. 토의사항

가. 학교 등록금 책정(안)에 대한 분석 및 설명

- 1) 학부 내국인은 등록금 5.49% 인상 시 계열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연간 45~6만원 정도 인상되며, 등록금이 인상될 경우 장학금액도 이와 연동되어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므로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부담액은 1인당 월 22,000원 정도임.
- 2) 학부 정원외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비교하였을 때 4.5%의 추가적인 인상이 있으나, 환율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달러당 1,400원 대의 환율이 뉴 노멀이라는 컨센서스가 있으며, 외국인 학생 국적 중 가장 많은 중국의 위안화로 적용하였을 때도 등록금이 1%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 적어도 이러한 기조가 4~5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3) 특수·전문대학원의 경우 각 대학원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대학원의 경우에만 인상하고 나머지는 동결 또는 입학금만 인상하여 평균 2.2% 인상 예정임.

나. 학교 등록금 책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1) (대학원) 특수·전문대학원 평균 2.2%라고 하지만, 인상한 대학원의 경우는 그대로 5.49%임. 법정 상한인 5.49%까지 인상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함.

→ 특수·전문대학원 학생의 대부분은 직장인이고, 직장인의 연봉인상률, 세금 혜택 등을 고려하였을 때 큰 부담은 아님. 대략 1인당 월 3만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며, 비용의 1/3은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추가 부담은 1인당 월 2만원 정도임. 등록금 수입의 15%는 소속 단과대학의 예산으로 배부하는데, 등록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수입은 초과강의료로 배정하여 야간수업으로 진행되는 특수대학원 강의를 전임교원이 진행하도록 독려하고자 함.

2) (학부 서울) 특수·전문대학원의 경우 인상된 대학원별로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궁금함.

→ 학교 차원에서 별도의 의견 수렴을 하지는 않았음. 지난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 위원 중 대학원생의 대표성을 지닌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위원분들께서 의견을 수렴하여 참석하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음. 향후라도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에서 공유하여 주셔도 좋음.

3) (대학원) 특수·전문대학원의 경우 직장인이 아닌 풀타임 대학원생으로 일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 등록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을 전달받기도 하였음.

→ 풀타임 대학원생이라도 직장을 다니다가 재취업을 위해서 오시는 등 커리어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간 몇 십만원 정도의 인상이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함.

4) (학부 서울) 교원과 직원의 상여금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함. 교직원보수규정에 월 분할하여 지급되는 상여수당에 해당하는 것인지?

→ 상여금 항목은 회계 분류상 만들어진 것이며, 연봉은 기본적으로 본봉과 수당으로 책정이 되고 수당은 연공과 직무 등에 따른 정해진 산식에 의해 산정되는 것으로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격과는 거리가 있음.

5) (학부 의대)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성된 교비회계에서 교원 확보를 위한 비용 등을 충분히 비등록금회계를 통해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비등록금회계 수입이 충분히 확보가 된 시점에서 120주년

사업을 위해 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지출하여 등록금 회계 수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닌지?

→ 비등록금회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 총장님 임기 중 개교 120주년 사업 등을 추진하며 기부금 수입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며, 국내 대학 기부금의 최대치는 통상 연간 450억원 정도였음. 본교의 경우 기부금 수입이 적을 때는 2~300억원 수준인 경우도 있었음. 따라서 매년 보장된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교원 인건비와 매칭하기 어려움. 기금 재원으로 선발한 교원의 경우에도 10년간은 기금으로 운영하지만 그 이후에는 등록금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수 있음.

6) (학부 의대) 교원 확보를 위한 비용을 등록금회계에서만 부담하는지, 비등록금회계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없는지?

→ 교원을 선발하게 되면 보수에 대한 부분 이외에도 시설과 연구비 등의 부수적인 비용이 있으며, 예산 항목 중 연간 70억 정도의 임의연구기금이 이에 해당하는 금액임. 또한 연구 공간 마련 등을 위해서 건축기금 등으로 서포트해야 함. 신입교원은 신입교원 일정 기간 신입교원 정착비라는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일시적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비용은 기금으로 커버하고 있음.

다. 서울캠퍼스 학부 학생위원의 요구사항 및 이에 대한 답변

1) 본교 적립금 현황과 요청사항

가) 최근 2년간 본예산 대비 결산액 기준, 교비회계에서 적립금 지출이 증가한 반면, 적립금 인출 수입은 감소하는 등 적립금의 계획 대비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 가장 규모가 큰 건축 적립금은 일정 금액이 모일 때까지 쌓았다가 지출되어야 하는 돈이며, 본예산에 편성해도 건축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장학 적립금의 경우 원금 보전형으로 이자만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 상당 비율을 차지함.

나) 장학 목적의 적립금을 사용하여 단과대학/독립학부별 성적 장학금 규모 확대 및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수혜받을 수 있는 장학제도 마련하고, 등록금 인상될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한 보전을 등록금만이 아닌 장학목적 적립금을 통해 일부 보전할 것을 요청함.

→ 현재 본교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4위,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은 2위로, 이미 충분한 액수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신청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70억 이상임. 소득분위별 장학금 수혜 통계를 보면, 중위소득까지는 절반 정도를 장학금으로 수혜하고 있으며 소득분위가 없거나 높은 학생들도 장학금 혜택을 상당수 받고 있어, 성적장학금을 늘리기보다는 신청하지 않는 장학금을 잘 활용하면 장학금 확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현재는 장학금액에 대한 투입을 더 늘리기보다는 우수한 교원을 확충하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이며, 학교는 이 부분에 더 집중해서 예산을 운영하고자 함.

다) 연구목적기금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교원 순 증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인지?

→ 연구목적기금은 앞서 설명하였던 것처럼 신입교원 정착비 등에 필요한 기금으로서 전임교원 확충에 사용하고 있음. 60명의 교원을 위해서 10년간 600억원의 기금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적립하고 있음. 2023년에는 8명 2024년에는 88명의 교원 순증이 있었음.

2) 본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과 교비회계 지출 개선 요구

본교의 법정부담금은 2014년 이후 60%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대학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낮은 수준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액이 약 100억원 규모인데, 이는 등록금 인상으로 증가하는 수입인 약 8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재단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을 개선하여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 문제 해결을 요청함.

→ 본교는 법인 산하에 중·고등학교가 있어서 재단에서 상당 부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본교 법인의 자산에는 임야 등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자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이와 같이 재단마다 자산 상황, 수입과 지출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자산규모로만 재단의 법정부담금 부담 능력을 비교할 수는 없음. 법정부담금이 높은 대학을 보면 대체로 자산규모가 크거나, 법정부담금 총액이 낮은 경우가 많고, 제시한 자료로만 보면 본교가 다소 낮은 것처럼 보이나, 자료에 나오지 않은 다른 대학 중에서는 더 낮은 비율을 부담하는 대학도 상당수 있을 것임.

3) 교비회계 학생 1인당 등록금 환원을 관련

대학재정알리미 통해 확인한 교비회계 교육비 환원율은 본교가 177.89%로 전국 대학 중 65위로 매우 낮은 수준임.

→ 교비회계로 한정하여 교육비 환원율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낮게 보일 수 있으나 총 교육비 환원율로 보면 본교가 24위, 연대가 23위 정도로 낮은 수준이 아님.

라. 세종캠퍼스 학부 학생위원의 요구사항 및 이에 대한 답변

1) 등록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세종캠퍼스 학생의 약 1/3 정도인

1,9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92%의 학생들이 동결 또는 인하 입장이었음. 또한 신입생 수가 지능형반도체공학과 50명, 첨단신약학과 및 디지털헬스케어공학과 각 25명, 교육부 규제 완화에 따른 비첨단학과 150명 가량이 증가하여 신입생 등록금 수입이 약 13억원,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한 교내장학금 감축분 13억원 등 26억원의 추가 수입의 효과가 있고,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을 때 유지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액 12억원을 고려하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등록금 5.49% 인상 시 수입 증가분인 약 30억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함.

-> 신입생 200명이 증원되며, 50명은 편입학 여석을 활용하도록 한 것은 맞음. 2014년에 정원이 감축되어 10년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4년 대비 2024년 등록금 수입이 50억원이 축소된 것을 지금

시점에 회복하는 것임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감안해주기 바람. 또한 세종 캠퍼스의 신입교원이 예년에는 5명 정도를 뽑았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10명 내외로 선발하는 등, 교원 확충에 따른 부담도 증가하였으며, 급여는 물가와도 연동이 되어야 하므로 물가를 반영하지 않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이를 커버할 수는 없고 등록금 인상이 필요함. 최근 2~3년 사이에 물가 상승률을 보면 대학이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음. 기존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최대 25억 원까지 부담하였는데, 재정지원이 줄어들어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이와 같이 재정지원사업은 인건비를 부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없음을 감안해주기 바람.

- 2) 세종캠퍼스의 국고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 지방대학활성화사업, RIS 사업 중 지방대학활성화사업과 RIS 사업이 종료되고 RISE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가지원금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금 인상을 통한 비용 부담보다는 대상이 되는 대학들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부와 소통을 진행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함. 등록금 인상에 따라 예비비로 전환될 국가장학금 2유형을 대학에 지원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 재정지원 사업 종료 및 RISE 사업으로 전환되며 세종시로 지원되는 예산을 3개 대학이 나누어 가지는 상황이며, 세종시에서는 공동캠퍼스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어서 세종시 예산을 통한 지원도 100억원에서 50~60억원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 충청지역 대학들이 의견을 모아서 교육부에 전달할 수 있겠으나 보장할 수 없음.

- 3) 세종공동캠퍼스와 관련한 예산을 살펴보았을 때 건축비 657억원 중 확보된 금액이 303억 정도이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과 발전기금 모금, 오송 의생명공학연구소 매각을 통해 200억원 정도를 마련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많은 학생들은 현재 학교의 시설과 운영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5~600억원 가량을 투자하여 공동캠퍼스로 가야하는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음.

-> 공동캠퍼스 예산 확보금액과 소요예산과의 괴리는 계속 고민하고 있음. 두 개의 필지에 두 개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 확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한 개 건물을 먼저 짓고 나중에 두 번째 건물을 짓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음. 학교에서 실시한 세종캠퍼스 발전계획을 위한 학생 설문조사에서는 공동캠퍼스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음. 조사 대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총학생회의 조사 결과를 공유해주기 바람.

마. 학생위원 측 등록금 인상(안) 제시

- 1) 서울캠퍼스 학부 내국인 : 4.5% 인상
- 2) 세종캠퍼스 학부 : 동결
- 3) 일반대학원 : 동결
- 4)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동결

6. 향후 회의 일정 협의

가. 3차 회의: 2025. 1. 23.(목) 14:00 ~

나. 3차 회의 이후 회의 진행 시 1. 31.(금)

<폐회 17:20>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2025년 예산) 참석자 명부

• 일시 및 장소 : 2025.1.17.(금) 13:00 / SK미래관 504호

• 참석자 명부

연번	직위	소속	성명	서명
1	위원장	기획예산처장	유용근	
2	위원	학생처장	박현숙	
3	"	총무처장	박철범	
4	"	세종 기획처장	변영주	
5	"	의과대학 교무부학장	김현수	
6	"	대학원행정팀장	박종호	
7	"	서울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장	김한범	
8	"	대학원 총학생회장	김용휘	
9	"	세종 총학생회장	김진경	
10	"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11	"	대학원 총학생회 정책국장	김혜민	
12	"	정경대학 학생회장	오영채	
13	"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김우성	